教育學 碩士學位 請求論文

初等學校 特技·適性 敎育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慶州大學校 敎育大學院

敎 育 行 政 專 攻

金 明 花

指導敎授 鄭 賢 珠

2003年 8月

初等學校 特技·適性 敎育의 改善 方案에 관한 硏究

慶州大學校 敎育大學院

敎 育 行 政 專 攻

金 明 花

이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指導敎授 鄭 賢 珠

2003年 8月

金明花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 査 委 員 長 인

審 査 委 員 인

審 査 委 員 인

慶州大學校 敎育大學院

2003年 8月

목 차

표 목 차

그 림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고도의 지식 정보화 사회로 개방화와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모든 교육력을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실-교과서-지식전달 중심의 전통적 학교교육 패러다임은 주변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점점 드러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구상하여 발표하였다. 신교육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을 비전으로 삼았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 교육 운영을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 된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교육개혁 과제로 제시된 신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특기 ·적성교육 활동의 강화로 풍부한 인간성과 창의성을 지닌 자율적인 한국인을 기르는 인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 교육의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제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었고 특별활동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끌어들여 계발활동 속에 포함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육과정 편제 속에 그 위치를 찾기 어려웠던 특기 적성 교육이라든가 학생의 소질과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들이 계발활동에 포함됨으로써 특별활동의 범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미래 사회에서 특별활동은 과거 어느 시기의 특별활동보다도 중요한 위치와 교육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성, 창의성, 적응력, 자기 주도력, 적성, 진로 등에 관한 교육은 교과보다도 오히려 특별활동이 담당하여야 할 영역이 더 넓고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외 활동으로 학생 자신의 소질과 개성을 발견하고 신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도록 하여야 하고 교사는 조력자로서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구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의 실태는 학교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관한 의식의 부족, 다양한 프로그램의 빈곤, 시설 미비, 학습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운영으로 그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고학력 사회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 상승 욕구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한 사회적 풍토 속에서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과 과외 학습의 과열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한 현상은 경제적으로 각 가정의 가계를 크게 압박하는 한편, 교육적으로는 학생의 인간성과 학습 습관, 태도, 가치관, 건강 등의 제 측면에 부작용을 가져오는 등 그 폐해가 날로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

제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활동은 교육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여겨진다. 개별적인 과외활동을 학부형간의 협의 자치를 통해 학교 내로 끌어들여 다수의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에게는 흥미와 욕구의 만족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덜어 주는 좋은 방안으로 학생의 능력과 적성, 취미를 살려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 지도 강사의 선정, 수강료 책정, 교육 장소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 ·적성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계획 및 수립, 운영, 평가 ·환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대상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기 ·적성교육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특기 ·적성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초등학교 특기 ·적성교육의 계획 및 수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셋째, 초등학교 특기 ·적성교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넷째, 초등학교 특기 ·적성교육의 평가 ·환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 방법은 특기 ·적성교육에 관한 문헌연구와 현장에서의 특기 ·적성교육 운영의 실제에 관한 설문 조사이다. 초등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필요성과 목적, 계획 및 수립, 운영, 평가 ·환류에 관하여 조사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주지역 초등학교에 국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특기 ·적성교육 개념의 이해

1) 특기 ·적성교육 관련 개념 정의

‘특기 ·적성교육’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9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은 특별활동과 방과후 특별활동의 발전된 개념이다. 특별활동이란 학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교과 학습활동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을 말한다. 특별활동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학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과학습활동 이외의 학교교육활동, 즉 학생의 개인신장, 건전한 취미와 특수기능의 육성 및 민주적 생활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회, 봉사활동, 운동경기, 토론회, 독서회, 클럽활동 등을 통하여 행해지는 교육활동’[1]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과학습 이외의 학교 교육활동, 즉 학생의 개성 신장, 건전한 취미와 특수 기능 그리고 민주적 생활태도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급활동, 학교활동, 클럽활동 등을 통해서 행해지는 교육활동’[2]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규 수업의 교육활동 외 방과후 학교에서 학생의 개성 신장, 건전한 취미와 특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소질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방과 후 특별활동’이라 하였다.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도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보충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서울: 배영사, 1981), p.574.
2) 류광찬 ·홍광식, 특별활동 교육론(서울:교육과학사, 1999), p.17.

수업과 자율학습이 존재했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이 없었고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교과 외 교육 활동이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방과후 교육 활동이라는 개념이 초 ·중등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혼란을 야기하게 되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999년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특기 ·적성 교육 활동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지금까지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특기 ·적성 교육은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으로 특별 활동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지만 특별활동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특별활동과 구별이 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인식되는 혼동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구별하기 위해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소질, 적성, 능력 등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고 건전한 취미를 가지게 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특기 ·적성교육 활동은 학습자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견하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잠재 능력을 효과적으로 계발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1995년 방과 후 교육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어 왔다. 1995년에 발표된 교육 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으로부터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방과후 교육 활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은 특별활동, 방과후 특별활동이 발전된 개념으로 정규 수업의 교육활동 이외에 방과 후

3) 교육개혁위원회, 신 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1995), p.32.

시간을 활용해 학생의 개성 신장, 취미, 소질, 특기 적성 계발을 위해 학교에서 교사, 외부 강사, 자원인사 등에 의해 수익자 부담으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전통적으로 교과와 특별활동의 두 영역으로 편성되어 왔다. 이것은 각 학교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서로 성격이 다른 교과와 특별활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그와 같이 두 영역으로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영역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육과정의 두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교과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문화유산을 차세대에 전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아 놓은 것이다. 교과는 그 문화 유산 중에서도 지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의 인지적이며 체계적인 전달에 중점을 둔다. 그 결과 교과의 내용은 학문적인 체계를 중시하면서 논리적인 계통성이 유지되도록 선정, 조직되는 것이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과의 내용을 전수 받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을 지금까지 교과 교육의 주목적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바람직한 인간성의 함양을 위해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교과 학습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시키기 어려워 교과 이외의 활동이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필요로부터 출발한‘ 교과외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특별활동이다.[4)]

4) 교육부, 특별활동 교사용 지도서(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p.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제 1차부터 7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교과와 더불어 특별활동 영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각 교육과정기별로 목표 구성, 영역, 활동 내용과 시간 배당 기준 등에 약간의 차이와 변화는 있었지만, 일관되게 교과 외 활동으로서 특별활동이 교과활동과 더불어 교육과정의 양대 지주로서 현재까지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교과와 특별활동이 제 위치를 확보하여 두 영역이 바람직한 관련 속에서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하고, 이 영역이 조화롭게 운영될 때 학교 교육 목표는 더욱 내실 있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7차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특별활동이란 용어를 학교 교육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이미 40년이 지났으며 교육과정의 변천과 더불어 그 내용도 조금씩 달라져 왔다. 특별활동은 원래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는 바람직한 집단활동을 통하여 자주적이고 실천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사회적, 인간적인 접근이 중시되는 교과 외 활동으로서 집단성, 자주성, 실천성이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영역은 특별활동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목표, 특성 등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활동이 많이 요구되며 학교 교육에서 특별활동 교육과정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 체제 속에서 그 목표와 영역, 내용,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근본적이고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 교육의 실현,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요구 반영, 신문화 세대 학습자의 욕구와 특성 반영, 국가 ·사회와 학부모의 요구 반영,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에 개정의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앞으로의 학교 교육에서는 특별활동이야말로 이러한 요구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 6차 교육과정에서 학급활동, 클럽활동, 학교활동의 3대 영역으로 구분하던 특별활동의 영역이 제 7차 개정에서는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의 5대 영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별 5대 영역을 기본 축으로 하여 활동 집단, 활동 장소, 활동 시기, 활동 리더, 활동 내용 등의 운영 관련 요인을 다중 차원으로 조합, 연관 시켜 종전의 평면적인 단순 편성 ·운영을 보다 입체적인 복합 편성 ·운영으로 다양화, 특성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특별활동의 독자적인 새 영역이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교육적, 시대적인 요구 및 수요에 부합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5)]

4) 계발활동과 특기 ·적성교육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활동이 요구되며 학교 교육에서도 창의성과 정보 처리 능력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인간 교육과 창의성 신장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앞으로의 학교 교육에서 특별활동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특별활동이야말로 국가 ·사회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요구에 가장

5) 이경환 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울 : 교육과학사, 1999).

확실하게 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개정된 제 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은 종래의 특별활동이 학급회와 클럽활동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한 반성에 유의하고 있다. 특히 제 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에 제시된 5개의 하위 영역 중에 '계발활동'은 종래의 클럽활동과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종래의 클럽이란 학년이나 학급에 구애됨이 없이 공통의 흥미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흥미나 관심사를 추구하는 활동을 클럽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변화하는 사회에 자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질과 개성을 지속적으로 계발, 신장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상설 클럽활동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를 특별활동에 수용해야 할 과제를 함께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집단 중심에서 내용 중심의 특별활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계발활동'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게 되었다. 계발활동이란 흥미, 취미, 적성이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 능력과 창의성을 계발, 신장시켜 나가는 자율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학교의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교과 외의 교육활동 중에서 학생의 소질, 적성 및 특기를 계발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계발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과정 편제 속에서 그 위치를 찾기 어려웠던 특기 ·적성교육이라든지 학생의 소질과 취미를 신장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이 계발활동에 포함됨으로써 특별활동의 범주로 보게 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교외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들여서 실시하였던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흡수 ·통합한 것으로 점차 절실해져 가고 있는 국가 ·사회적, 국민적 필요와 요구를 공교육에 수용 ·반영하는 적극적인 교육과정 개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영역 중에서 계발활동에 포함되는 여섯 종류의 각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구체적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표 Ⅱ-1>과 같다.[6)]

<표 Ⅱ-1> 계발활동의 영역

영 역	활 동 내 용
학술 문예 활동	문예, 연극, 방송, 음악, 미술, 전통예술, 외국어 회화, 과학, 탐구, 사회 조사 등
보건 체육 활동	육상, 구기, 수영, 체조, 무용, 민속놀이, 씨름, 태권도, 테니스 등
실습 노작 활동	사육, 재배, 조경, 목공예, 제도, 설계, 조리, 수예, 재봉 등
여가 문화 활동	등산, 사진, 독서, 영화, 원예, 기악(기악합주, 바이올린), 서예, 바둑, 장기, 사군자, 만화그리기, 종이접기, 레크리에이션 등
정보 통신 활동	컴퓨터 통신, 인터넷, 신문활용학습, 국제이해 교육 등
청소년 단체 활동	소년 소녀단, 청소년 연맹, 적십자, 우주 정보 소년단 등
기타 활동	위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

2. 특기·적성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1) 특기·적성 교육의 필요성

급변하는 세계화를 향한 개방화·국제화는 우리 교육 현장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한국인이 세계와 더불어 생존하기 위해서

6) 교육부, 전게서, p.16.

는 세계 속의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 속의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활동 교육과정 정신인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민주시민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전인교육, 인간교육은 교육과정 편제의 최소한 시간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으며,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학교 개방을 통한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방과후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간이다. 실제로 학교 교육활동의 한 부분으로 방과후 활동을 도입한 것도 정해진 교과 내용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오로지 교과 공부에 매달려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획일적인 교육을 벗어 던지고, 학생들의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주는 '여러 줄' 세우기 교육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인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7], 이에 부응하는 교육 환경 및 새로운 학교 문화 창달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교육에서 특기 ·적성 교육의 필요성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기 ·적성 교육은 인간의 다양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교육의 중요한 본질적 목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켜 개인의 자아 실현을 돕는 데 있다. 인간이 가진 잠재 능력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이론적인 추상적 지식이 전개에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술적 또는 신체 ·운동적 표현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다. 관찰하고 실험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을 읽고 사색하는 것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 가드너가 지적했듯이, 인간은 언어적 지능과 수리적 지능 외에도

7) 경상북도교육청, 특기 ·적성 교육의 길라잡이(경상북도교육청, 2001), p.19.

이들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다양한 지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기존의 교육이 중요시하고 그 계발에 관심을 기울인 언어 및 수리적 지능 외에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지능을 최대한 계발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특기 ·적성 교육은 21세기형 인간을 길러내는 데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가 활동할 21세기는 특기와 적성을 갖춘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탈산업화, 정보화, 세계화로 특징 지워지는 21세기 사회는 다원성이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닌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동일한 지식을 모두가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21세기는 주어진 지식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세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특기 ·적성 교육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도 요청된다. 도서 벽지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도시의 영세민 자녀는 자신이 잠재적으로 가진 특기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서 벽지나 농어촌 지역에는 특기 ·적성 신장과 관련된 사회 교육이나 사교육 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도시의 영세민 자녀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 밖에서 특기 ·적성 교육 기회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특기 ·적성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사회 문화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러한 학생들이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특기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넷째, 특기 ·적성 교육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학교에서 교과위주의 지식 교육만이 이루어질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특기나 적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학교 밖의 교육에 의존한다. 따라서 학

생과 학부모는 특기와 적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에 막대한 양의 사교육비를 들이게 된다. 학교에서 특기 ·적성 교육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사교육비는 일정 부분 줄어들게 될 것이다.[8)]

초등학교 시기는 일생을 통해서 보면 생활습관과 학습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얻은 경험은 그 후의 변화를 학습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얻은 경험은 그 후의 변화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들은 이 시기에 건전한 생활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9)] 우리의 교육이 학교가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진정한 전인교육을 위한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계발시켜 주는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의 기회 제공은 학교가 당연히 떠맡아야 할 임무이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2) 특기 ·적성 교육의 목적

Baden 등은 방과후 교육활동의 목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천으로 아동,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 지도자, 지역사회의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요구에 입각한 방과후 교육활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요구면에서 볼 때 방과후 교육활동의 목적은 아동들의 다양한 종류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둘째, 학부모의 요구면에서 볼 때 방과후 교육활동의 목적은 학부모들의 요구, 가치관, 문화적 다양성 등을 존중하는 가운데 부모의 일할 권리

8) 상게서, p.20.
9) 유재을, 「유치원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

를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학부모라면 누구나 마음놓고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보호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이다.

셋째, 방과후 교육활동 지도자의 요구면에서 보았을 때 방과후 교육활동은 그들에게 적절한 보수와 작업환경이 제공되며, 지도자와 아동수의 비율이 적절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가운데 지도자 및 아동의 복지가 보장되도록 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요구면에서 보면 방과후 교육활동은 기존의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자긍심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10]

김명례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논문들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의 목적을 첫째, 학생의 소질, 적성개발 및 보충 심화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바른 인성의 정착, 둘째, 아동의 사회적, 지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활동의 선택권 부여, 셋째,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 지도교사, 지역사회의 욕구 충족, 넷째, 학생의 독립심, 협동, 자기통제, 책임감 등을 포함하는 자율성을 기르는 것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11]

한편 경상북도경주교육청 공문 '2003 특기 ·적성 교육 추진 계획' 에 의하면 방과후 교육활동 목적을 첫째, 학생의 소질 ·적성 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둘째, 특기 ·적성 교육과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문화 창달, 셋째,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으로 구분하였다.[12]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지육(智育)위주의 교육 즉 교과 위주의 지식 교

---

10) 한국여성개발원,「방과후 아동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1994) pp.12-13.
11) 김명례,「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와 관리자의 관심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 p.14.
12) 경상북도경주교육청, 2003학년도 특기 ·적성교육 추진계획(2003. 2. 1), p.13.

육으로‘ 한 줄’ 로 세우는 획일적인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막대한 양의 사교육비를 들여 학교 밖의 교육에 의존해 왔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는 1997년 3월‘ 과외실태조사팀’ 을 구성하여 과외실태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1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팀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70.3%, 중등학생의 49.5%가 현재 과외를 받고 있거나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에 있어서는 과외 수업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이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초등학생의 70.8%, 일반계 중등학생 61.8%, 그리고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의 86.9%가 대학 입학전에 과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표본 집단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 과외수업비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각 시 ·도의 학생수의 비율을 고려할 때, 즉 지역별 인구 가중치에 비추어 추정한 수치로 97년도에 약 9조 4,300억원이 사교육비 중 과외비로 소요된 금액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7년 5월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연간 사교육비를 11조 9천억원으로 발표하였다.[14] 사교육비는 교육회계에 잡히지 않는 일체의 교육비를 의미하므로 학교에 납부하는 등록금을 제외한 교재대, 교통비, 과외비 등을 포함하므로 소비자 보호원이 제시한 사교육비와 서울대교육연구소 조사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과열과외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학교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다. 과외 수업은 학교 교육을 보완하기보다는 학교 교육을 앞질러 가면서 학교교육을 무력화시키고, 교사들에게 가르칠 의욕을 잃게 하고, 과외를 받지 않는 아동은 열등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문제에 학교가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다. 자꾸만 커져 가는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교육

13) 조선일보(1997. 5. 12)
14) 동아일보(1997. 5. 19)

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의 운영을 현상유지 또는 점진적인 발전을 꾀하면서 방과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 높은 특기 · 적성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기능을 보완하고 학교 밖 과외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제시한 방과후 교육활동의 목적들 중에 공통적인 항목을 추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에서 무한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개인 과외나 학원수강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학교가 최대한 충족시킨다.

둘째,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활성화시켜서 학생들의 생활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한다.

셋째, 학교 밖의 개인과외나 학원 수강으로 인한 지나친 학업 또는 금전적 부담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고,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적 낭비를 줄인다.

넷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취미와 특기를 신장시킨다.

다섯째,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통해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한다.

3.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

1) 도입 목적

앞에서 살펴본 특기 ·적성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을 토대로 학교에서의 특기 ·적성교육의 도입 목표는 다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5)]

첫째, 사교육비의 경감을 목표로 운영된다. 특기 ·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것이다. 자녀의 개성과 적성의 신장 및 학업성취도를 높이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욕구가 학교의 정규 교육에 의하여 충족될 수 없게 되자 학부모들은 고액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그들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학교 밖의 사설 학원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교육비의 부담이 가계는 물론 국민 경제 차원에서 문제가 되자 사교육비 경감 문제는 국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이의 해결방안으로 본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다.

둘째,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 신장 및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목표를 둔다. 특기 ·적성 교육활동이란 제도가 반드시 사교육비의 경감만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 보다 본 제도 도입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을 발견, 신장시키며 학생들의 부족한 교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자는 것이었다. 원래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을 발견하고 이를 신장시키는 일은 학교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일도 역시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로 이러한 학교 교육의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부모들은 학교가 수행하는 정규 교육만으로는 도저히 그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 이에 학교의 정규 교육은 아니지만 학교의 시설과 인력(교사)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서라도 학교가 다하지 못하는 교육적 책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15) 허경철 ·홍생표,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 pp.12-13.

하게 되었다. 즉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을 신장시키고, 부족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교육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이 도입된 것이다.

셋째,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학교의 권위 수립의 목적이 있다. 학교 교육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만족스럽게 수용하지 못하게 되자 학부모들은 그들의 욕구를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하여 충족시키고자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어 학교는 점점 더 교육적 역량과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만약 이러한 현상이 더 이상 지속된다면 학교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교육을 일단 학교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학교 정규 교육의 질 전체를 단시일 내에 향상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단 특기 ·적성 교육활동이란 비정규적이고 비공식적인 우회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중요하였다. 학교의 권위를 수립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방과후 교육활동 도입의 또 다른 측면인 것이다.

넷째,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학교 역할 수행을 목표로 실시한다. Lengrand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교육의 전 과정의 생활화, 성인의 전 생애를 통한 계속적인 교육, 모든 형태의 수직적 통합과 개인 및 사회생활의 모든 국면을 포함한 수평적 통합 등 네 가지 요소를 그 핵심으로 한다고 하였다.[16] 미국의 경우에 학교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으로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의 상실, 학생의 성취 수준에 대한 높은 기대, 교육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증대, 일반 경제적 상황, 학교 등록율의 감퇴, 교육시설에 대한 새로운 요구[17]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16) 윤종건, 한국 교육의 이해(서울 : 교학연구사, 1992), p.15.
17) 상게서, 1992.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식 ·정보의 양은 폭증하고 그 생산과 소멸 주기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각 개인의 성공적 삶을 위해 절실하다. 따라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린교육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18]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아동들의 교육만을 책임진다는 전통적 의식에서 벗어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즉,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계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연계교육은 대부분 대학 시설을 이용한 교양과정 중심의 일반인 교육이나 학교의 어머니교실을 이용한 교양강좌, 취미활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평생교육의 일부분으로써 학부모들의 취미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과 함께 취업을 원하는 부모들의 기능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하고 바른 여가 지도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초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 시설 · 설비를 개방하여 「지역사회 문화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19]

다섯째,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아동 보호기능의 목적이 있다. 급격한 산업의 발달은 노동력의 부족현상을 가져왔고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으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 그리고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한 욕구는 여성의 사회생활의 참여를 가져왔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총계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취업 여성들의 큰 고민거리가 자녀교육인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방과후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가 문

18) 교육개혁위원회, 전게서(1995), pp.23-24.
19) 상게서, pp.34-35.

제시된다. Clark Steuart에 의하면 어머니가 직장에 있는 동안 행해지는 아동들에 대한 감독이 아동의 지적발달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부모의 보호와 감독을 받지 못한 아동들은 보살핌을 받은 아동에 비해 인지적으로 열등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20]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적 흡수력이 강한 시기의 아동에 대한 인성교육 및 학습지도,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학교가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요컨대 특기 ·적성 교육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기회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교에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운영의 기본 방침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서 학교 81100-198(2001. 2. 10)에서는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특기 ·적성 교육 운영 기본 방침과 세부 실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개설 및 강사 채용 기준과 절차

특기 ·적성 교육 운영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의 특성, 학생의 요구, 학교의 설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프로그램은 학생의 자율적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수준별로 편성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학교 단위의 개설이 불가능한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인근 학교와 협력하거나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교과 관련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는 논술반,

20) 김정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6), p.21.

CNN 청취반, 영어 연극반, 영어 독해반, 수리 탐구반, 실험 탐구반, 무용반, 합주반, 사물 놀이반, 문화 유적 답사반등을 예시하고 있다.

개설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임용한다.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희망하는 현직교사, 교사 발령 대기자, 교대 ·사대생 및 전공과 부합되는 대학생, 교사 자격증 소지자, 예체능 전문가, 대학생 자원 봉사자,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특정 기술 ·기능 보유자 및 학원 강사, 교육청에서 보유한 인력풀(Pool)의 강사 등으로 한다.

(2) 운영 및 심의

특기 ·적성 교육의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서 학교장이 운영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 내용, 예산 집행 결과 등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특히 강사료는 시 ·도 교육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 내용은 특기 ·적성 교육 활동 운영 계획 및 소요 경비 집행 내역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개설, 강사 채용 및 강사료, 학생 부담액, 교재 선정, 외부 시설 이용 등으로 한다.

(3) 예산의 운용

프로그램 지도 강사비 및 최소한의 필요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예산의 재원은 국가나 지방 교육재정특별교부에서 일정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학생 부담금과 지원금은 별도로 관리하며, 특히 학생 부담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시간 이상을 기본단위로 월정액을 징수

하되 불가피할 경우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학생 1인당 부담금은 외부 강사일 경우 월 18,000원 정도, 현직 교사일 경우 월 12,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프로그램당 월 강사료는 현직 교사는 월 250,000원, 외부 강사는 500,000원, 민간 참여 업체는 월 600,000원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4) 부담금의 부분 지원

12학급 미만의 일부 소규모 학교와 저소득층, 실직자, 보훈 대상자 자녀 및 소년 ·소녀 가장, 극빈자 자녀 등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그 부담액을 국고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5) 주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 체제

학교운영위원회의 특기 ·적성 교육에 관한 심의 내용 및 예산 집행 결과를 전체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하며, 운영 주체인 학교는 주기적으로 평가 ·환류하는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고있다. 평가는 정기 평가를 매 학기별로 1회(연 2회)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평가할 수 있다. 특기 평가 시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및 의견 수렴을 직접 메일(DM) 방식으로 1회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6) 지역 시설의 이용

학교 시설이 부족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 시민회관, 체육시설, 예술 단체나 기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인근 대학, 청소년 단체 및 사교육 부문의 시설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의 상승 효과를 얻도록 한다.

(7) 기타 효과

희망 학생 수가 적거나 단위 학교별로 개설이 힘든 프로그램은 인근 학교와 협력 또는 교육청 주관으로 개설하여 강사, 시설, 자료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며 단위 학교, 인근 학교간 연계 및 교육청 주관의 청소년 문화 축제로 승화시킨다.

3)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의 계획과 수립 절차

(1) 학교 여건과 지역 사회의 요구 조사

특기 ·적성 교육활동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각급 학교의 교육 시설에 대한 활용도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학교 여건을 살펴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을 파악하고 학부모에게 안내한 후 학부모의 요구 내용을 수렴하여 특기 ·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2)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운영 계획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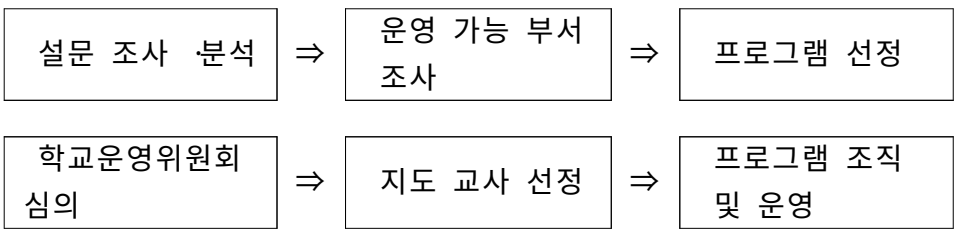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기 ·적성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운영 내용과 수준별 부서 확정, 부서별 인원 및 수강료 확정, 강사 선임 및 강사료 책정, 교재선택, 수강료 수납 방법 등을 심의한 후 학교장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특기 ·적성 교육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내 특기 ·적성 교육활동 소위원회를 별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소위원회의 심의(자문) 내용은 차기 운영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한다.

(3) 특기 ·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 선정

학생 ·학부모의 희망을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 사회의 요구 사항 및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되 희망자가 많은 순으로 부서를 조직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한다. 희망하는 학생 수가 적거나 특별시설 ·설비가 필요하여 단위 학교별로 개설 곤란한 일부 프로그램은 인근 학교와 협력하거나 또는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을 권장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 높은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서 2-3개 과목을 수강 요청하는 아동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요일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한다.

초등학교에서 특기 적성 교육프로그램의 선정은 다음 <그림 Ⅱ-1>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 Ⅱ-1> 특기 ·적성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 절차>



초등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특기 ·적성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종류는 다음 <표 Ⅱ-2>와 같다.

<표 Ⅱ-2> 특기 적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종류

관련교과	특기 ·적성 교육활동 권장 프로그램
국 어	문예, 작문, 논술, 한자, 독서 등
수 학	수학, 수리 계산, 암산 등
과 학	탐구 교실, 과학 실험, 자연 관찰, 해양 탐구, 발명, 환경 과학
영 어	영어 회화, 생활 영어 등
체 육	구기, 태권도, 검도, 수영, 무용, 육상, 단체 수련, 씨름 등
음 악	합창, 합주, 국악, 기악, 사물놀이, 농악, 민요, 판소리 등
미 술	회화, 서예, 조각, 공예, 디자인, 미술 감상 등
기 타	연극, 수예, 유적지 탐사, 등산, 전통 예절, 방송, 신문, 웅변, 다도, 컴퓨터 기초, 컴퓨터 응용, 원예, 꽃꽂이, 조경, 사진, 바둑, 수지침 등

(4) 수강료 책정 및 수납

수강료는 주변 학교와 균형을 맞추되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준 및 수강 아동 수에 따라 수강료가 달라지므로 학교가 그 적정 기준을 선정하고 행정실에서 납부하기 어려우면 '스쿨뱅킹' 을 이용할 수 있다. 수강료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과목 1인당 2만원 내외가 가장 많다.

한편 외부강사를 채용할 경우 읍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적어 강사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수강료가 외부학원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어 사교육비 감소란 본래의 목적 달성이 미흡해지므로 소규모 학교의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실직자, 보훈대상자 자녀 및 소년 ·소녀 가장, 극빈자 자녀 등이 참여를 희망할 경

우에는 그 부담액을 국고 충당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들의 관심도와 열의가 부족하여 특기 ·적성 교육 활동 본래의 취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1]

기본적으로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안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편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원칙이 모호하고 낭비적 요인도 많으므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정규적인 교과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강사 채용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던 부분이 우수 강사 확보의 어려움이다. 현재는 희망하는 현직교사, 교사 임용 발령 대기자, 교대생 및 사대생, 전공과 부합되는 대학생, 교사자격증 소지자, 예 ·체능 전문가, 대학생 자원 봉사자,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분야에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특정한 기술 ·기능 보유자 및 학원 강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강사 뱅크제에 등록된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언제든지 손쉽게 임용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22] 그러나 강사 문제는 교육활동 운영시의 경비(강사료)와 관계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강사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강사 채용 계약은 시간 강사로 학교 실정에 따라 3 6개월 단위로 계약한다.

현재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강사료 및 최소한의 필요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중 희망하

21) 상게서, p. 104.
22) 경상북도 교육청, 전게서, p.2.

는 학생이 많고 강사료 소액 지원으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큰 프로그램을 우선 선정한다.

(6) 평가 및 환류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지도교사의 역할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지도할 교사와 관리할 교사로 구분하여 지도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지도, 평가를 담당하고, 관리 교사는 지도 장소 관리, 지도 시간 배정, 경비 문제, 참여 학생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외래 강사일 경우에는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직접 지도하고, 수강 학생을 관리하게 하며 협력 교사는 외래 강사와의 약정서나 서약서의 준수 여부 및 지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규모가 적은 학교에서는 명예교사(무료운영)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거나, 자원 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4. 선행연구의 고찰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현준은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활동 운영에 대한 연구'에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하며, 학교 실정이나 ·지역실정에 알맞은 영역부터 먼저 선정 · 조직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3)]

유광기는 '상설특별활동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에서 학교에서 개설 운영한 상설특별활동이 사교육비 부담 해소에 기여를 하

23) 이현준,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연구」, 연세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5), pp.88-89.

였으나, 시간 운영의 능률과 적정성에서는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효율적인 시간운영을 위하여 세밀한 계획 수립이 요망된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발표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상설특별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였으나, 결과 발표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의 애로가 따른다고 하였다.[24)]

김정하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기관의 지역적 특성이 저소득층이 많고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아 열악한 주변환경 속에 학령기 아동이 방치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시의 어려움으로는 재정의 부족, 시설 및 기자재의 부족,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자원봉사자 및 교사 채용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정적 ·법적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25)]

최기웅은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의 과외교습 실태를 보면 학원 수강 아동이 조사 대상 아동의 76.2%에 이르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차이가 아동의 방과후 보호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고,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제정 문제에서는 학부모들의 91.3%가 수익자 부담 의지를 보이나 교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육프로그램의 담당교사에 있어 교사는 수습교사, 지역사회인사, 대학생을 고루 선택한 반면 학부모는 학교교사나 수습교사, 대학생들을 선호한다고 하였다.[26)]

서일옥은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실태조사'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2학년부터 시작해 6학년까지 주당 3일씩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

24) 유광기, 상설특별활동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1998), p.67.
25) 김정하, 전게논문 p.21, pp.72-77.
26) 최기웅,「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

으며 유상으로 지도 받는 종목은 컴퓨터와 영어였고 희망도 가장 많다고 하였다. 아직은 시설과 장소가 부족하고 여건의 조성도 미비하지만, 아동들에게 지능 및 특기신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어 학교의 공교육적 기능과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의 절감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27]

김명례는‘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초등학교교사, 관리자의 관심도를 알아보는 연구’를 통해 교사와 관리자의 관심도가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관계가 있음을 연구하여 교육정책에 키를 반영하게 하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28]

김귀희는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 학부모, 아동의 요구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였다.[29]

김선미는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서 그것을 보는 관점을 범주화하여 이론적 모형을 만들고 사례를 통해 평가, 수정하여 학령기 아동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모형을 정립하였다.[30]

구정회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지도할 유능

---

27) 서일옥,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실태조사, 초등특별연구교사 연구보고서 경상남도 교육청(1997), pp.583-584.

28) 김명례,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와 관리자의 관심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

29) 김귀희,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활동의 문제점과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30) 김선미, 「학령기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모형 정립」,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한 교사의 확보가 요청된다고 제안하고 있다.[31]

31) 구정회,「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9), p.62.

Ⅲ. 분석 모형 및 조사 설계

1. 분석 모형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기 ·적성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계획 및 수립, 운영, 평가 ·환류에 관한 현직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Ⅲ-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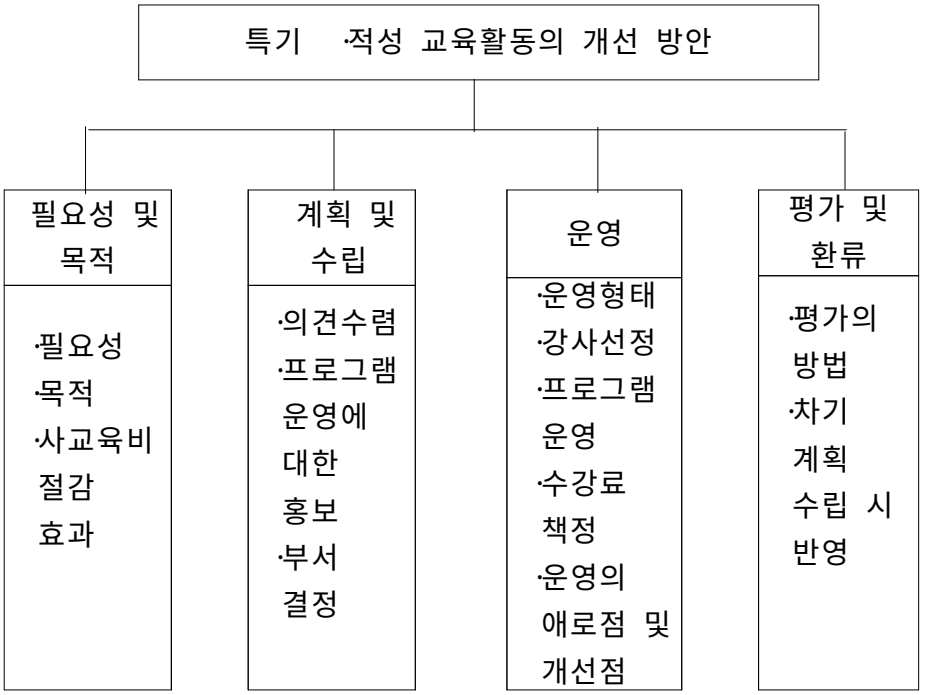
첫째, 교사들은 특기 ·적성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가? 특히, 사교육비 절감의 목표는 성취되고 있는가?

둘째, 특기 ·적성 교육의 계획 및 수립에서 의견 수렴,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홍보 및 부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셋째, 특기 ·적성 교육의 운영 형태, 지도 강사의 선정, 적정 지도 횟수, 수강료 부담 정도, 장소, 학습자료 등에 나타난 운영의 실태는 어떠한가?

넷째, 특기 ·적성 교육의 평가 방법과 환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림 Ⅲ-1> 특기 ·적성교육 활동 개선방안 연구의 분석 모형



2. 조사 설계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동, 읍, 면 소재 공립 초등학교 교사 983명 중 185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 하여 160부(86.4%)를 회수하였다.

2) 조사 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교사의 초등학교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문항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지를 토대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교사를 조사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은 특기 ·적성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계획 및 수립, 운영, 그리고 평가 및 환류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설문지 영역별 문항 구성내용

영 역	문 항 내 용	문항 번호
특기 ·적성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필요성	1
	추구해야 할 목적	2
	사교육비 절감효과	3
특기 ·적성교육의 계획 및 수립	의견수렴	4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홍보	5
	부서 결정	6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	운영 형태 - 종류 - 협력프로그램 운영	 7 21
	강사선정 - 지도 능력 - 지도시 애로사항 - 강사 선정 절차	 8 9 10
	프로그램 운영 - 운영실태 -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 - 학생 참여 부진의 이유 - 학생 참여 활성화 방안 - 프로그램 지도 내용 인식 - 학습 지도자료 - 적정 지도횟수 - 장소	 11 12 13 14 15 16 17 20
	수강료 - 적정 수강료 - 수강료 부담 정도	 18 19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 - 운영의 문제점 - 운영의 개선점	 22 23
평가 및 환류	평가	24
	환류	25

3)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특기 ·적성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특기 ·적성교육의 계획 및 수립,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 특기 ·적성교육의 평가 및 환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Chi-square) 검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의 수준은 α=.05, α=.01, α=.001에서 검증하였다.

Ⅳ.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분포 상황은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48	30.0
	여	112	70.0
교직경력	10년 미만	25	15.6
	10 20년	43	26.9
	21년 이상	92	57.5
학급수	6학급 이하	2	1.3
	7 18학급	15	9.4
	19 36학급	57	35.6
	37학급 이상	86	53.8
학교소재지	동 지역	93	58.1
	읍 ·면 지역	67	41.9
계		160	100.0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70.0%로, 남자교사 30.0%보다 많았다. 교직경력별로는 21년 이상이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0 20년 26.9%, 10년 미만 15.6% 순으로 나타났다. 학급수별로는 37학급 이상이 53.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19 36학급 35.6%, 7 18학급 9.4% 순으로 나타났으며, 6학급 이하는 1.3%로 매우 적었다.

2. 분석결과

특기 ·적성 교육의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성별, 경력별, 학급수별, 소재지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특기 ·적성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1) 특기 ·적성교육의 필요성

특기 ·적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2>과 같이 전체 5점 만점 중 3,56으로, 교사들은 특기 ·적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Ⅳ-2> 특기 ·적성교육의 필요성

구 분		n	Mean	SD	t	p
성별	남	48	3.67	0.95	0.93	0.354
	여	112	3.51	1.00		
교직경력	20년 이하	68	3.76	0.85	2.41	0.017*
	21년 이상	92	3.40	1.05		
학급수	36학급 이하	74	3.72	0.99	1.93	0.056
	37학급 이상	86	3.42	0.96		
학교소재지	동 지역	93	3.44	0.91	-1.76	0.080
	읍 ·면 지역	67	3.72	1.06		
전 체		160	3.56	0.98		

* p<.05, ** p<.01, *** p<.001

성별, 학급수별,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41$, $p<.05$). 교직경력별로는 20

년 이하 교사가 21년 이상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특기 ·적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직경력이 20년 이하인 교사가 21년 이상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2) 특기 ·적성교육의 목적

특기 ·적성교육의 목적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3>과 같이 특기 ·적성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소질 계발 및 특기신장에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80.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서함양과 심성계발 10.6%, 방과후 아동생활 지도 및 탁아기능 6.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3> 특기 ·적성교육의 목적

구 분		정서함양과 심성계발	아동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	방과 후 아동생활 지도 및 탁아 기능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4 (8.3)	39 (81.3)	3 (6.3)	2 (4.2)	48 (30.0)	2.30 (3)	0.512
	여	13 (11.6)	90 (80.4)	8 (7.1)	1 (0.9)	112 (70.0)		
교직경력	20년 이하	7 (10.3)	57 (83.8)	4 (5.9)	-	68 (42.5)	2.55 (3)	0.466
	21년 이상	10 (10.9)	72 (78.3)	7 (7.6)	3 (3.3)	92 (57.5)		
학급수	36학급 이하	8 (10.8)	58 (78.4)	5 (6.8)	3 (4.1)	74 (46.3)	3.58 (3)	0.311
	37학급 이상	9 (10.5)	71 (82.6)	6 (7.0)	-	86 (53.8)		
학교 소재지	동 지역	8 (8.6)	79 (84.9)	6 (6.5)	-	93 (58.1)	5.59 (3)	0.133
	읍 ·면 지역	9 (13.4)	50 (74.6)	5 (7.5)	3 (4.5)	67 (41.9)		
계		17 (10.6)	129 (80.6)	11 (6.9)	3 (1.9)	160 (100.0)		

* $p<.05$, ** $p<.01$, *** $p<.001$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교사들이 특기 ·적성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소질 계발 및 특기신장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특기 ·적성교육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

특기 ·적성교육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4>과 같이 전체 평균이 3.19로, 교사들은 특기 ·적성교육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해 그다지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았다.

<표 Ⅳ-4> 특기 ·적성교육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

구 분		n	Mean	SD	t	p
성별	남	48	3.21	1.03	0.16	0.874
	여	112	3.18	1.11		
교직경력	20년 이하	68	3.18	1.11	-0.11	0.912
	21년 이상	92	3.20	1.07		
학급수	36학급 이하	74	3.30	1.08	1.19	0.235
	37학급 이상	86	3.09	1.08		
학교소재지	동 지역	93	3.22	1.09	0.38	0.706
	읍 ·면 지역	67	3.15	1.08		
전 체		160	3.19	1.08		

* p<.05, ** p<.01, *** p<.001

성별, 학급수, 교직경력,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특기 ·적성교육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해 그다지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특기 ·적성교육의 계획 및 수립

(1) 특기 ·적성교육의 의견수렴

특기 ·적성교육 계획 수립시 교사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수렴 정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5>와 같이 전체 평균이 3.40으로, 교사들은 특기 ·적성교육 계획 수립시 교사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이 그다지 수렴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표 Ⅳ-5> 특기 ·적성교육의 의견수렴

구 분		n	Mean	SD	t	p
성별	남	48	3.42	0.74	0.17	0.864
	여	112	3.39	0.94		
교직경력	20년 이하	68	3.21	0.91	-2.42	0.017*
	21년 이상	92	3.54	0.84		
학급수	36학급 이하	74	3.57	0.85	2.25	0.026*
	37학급 이상	86	3.26	0.90		
학교소재지	동 지역	93	3.24	0.88	-2.81	0.006**
	읍 ·면 지역	67	3.63	0.85		
전 체		160	3.40	0.88		

* $p<.05$, ** $p<.01$, *** $p<.001$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42$, $p<.05$). 교직경력별로는 21년 이상 교사가 20년 이하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 계획 수립시 교사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이 수렴된다고 인식하였다.

학급수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25, p<.05). 36학급 이하 교사가 37학급 이상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 계획 수립시 교사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이 수렴된다고 인식하였다. 학교 소재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81, p<.01). 읍 ·면지역 교사가 동지역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 계획 수립시 교사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이 수렴된다고 인식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특기 ·적성교육 계획 수립시 교사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이 그다지 수렴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직경력이 21년 이상인 교사와 학급수가 36학급 이하인 교사, 그리고 읍 ·면지역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 계획 수립시 교사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수렴 정도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다.

(2) 특기 ·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홍보

특기 ·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홍보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5>와 같이 전체 평균이 3.31로, 교사들은 특기 ·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홍보가 그다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표 Ⅳ-6> 특기 ·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홍보

구 분		n	Mean	SD	t	p
성별	남	48	3.35	0.67	0.51	0.611
	여	112	3.29	0.82		
교직경력	20년 이하	68	3.18	0.73	-1.83	0.069
	21년 이상	92	3.40	0.80		
학급수	36학급 이하	74	3.39	0.81	1.30	0.197
	37학급 이상	86	3.23	0.75		
학교소재지	동 지역	93	3.23	0.72	-1.51	0.133
	읍 ·면 지역	67	3.42	0.84		
전 체		160	3.31	0.78		

* p<.05, ** p<.01, *** p<.001

성별, 교직경력별, 학급수별,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특기 ·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특기 ·적성교육 활동의 부서 결정 방법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부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Ⅳ-7>과 같이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부서는 아동 및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 시설 및 강사 확보 가능성에 따라 30.0%, 학교의 교육목적이나 방침에 의해 15.6%, 교사의 의견수렴을 통해 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7> 특기 ·적성교육 활동의 부서 결정 방법

구 분		아동 및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교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의 교육 목적이나 방침에 의해	학교 시설 및 강사확보 가능성에 따라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23 (47.9)	2 (4.2)	6 (12.5)	15 (31.3)	2 (4.2)	48 (30.0)	5.19 (4)	0.268
	여	56 (50.0)	4 (3.6)	19 (17.0)	33 (29.5)	-	112 (70.0)		
교직 경력	20년 이하	27 (39.7)	2 (2.9)	14 (20.6)	23 (33.8)	2 (2.9)	68 (42.5)	7.59 (4)	0.108
	21년 이상	52 (56.5)	4 (4.3)	11 (12.0)	25 (27.2)	-	92 (57.5)		
학급수	36학급 이하	39 (52.7)	2 (2.7)	12 (16.2)	19 (25.7)	2 (2.7)	74 (46.3)	3.93 (4)	0.416
	37학급 이상	40 (46.5)	4 (4.7)	13 (15.1)	29 (33.7)	-	86 (53.8)		
학교 소재지	동 지역	42 (45.2)	4 (4.3)	15 (16.1)	32 (34.4)	-	93 (58.1)	5.23 (4)	0.265
	읍 ·면 지역	37 (55.2)	2 (3.0)	10 (14.9)	16 (23.9)	2 (3.0)	67 (41.9)		
계		79 (49.4)	6 (3.8)	25 (15.6)	48 (30.0)	2 (1.3)	160 (100.0)		

* $p<.05$, ** $p<.01$, *** $p<.001$

성별, 교직경력, 학급수,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부서는 아동 및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

(1)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 형태

①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 형태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 형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Ⅳ-8>과 같이 교내

교사와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하는 학교가 47.5%로 가장 많았고,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교육활동만 하는 학교도 47.5%로 비교적 많았으며, 외부 강사와 자원봉사자에 의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하는 학교는 3.1%로 매우 적었다.

<표 Ⅳ-8>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 형태

구 분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만 한다	교내 교사와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한다	외부 강사와 자원봉사자에 의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한다	계	χ^2 (df)	p
성별	남	22 (45.8)	23 (47.9)	3 (6.3)	48 (30.0)	2.21 (2)	0.331
	여	54 (48.2)	56 (50.0)	2 (1.8)	112 (70.0)		
교직경력	20년 이하	33 (48.5)	35 (51.5)	-	68 (42.5)	3.83 (2)	0.148
	21년 이상	43 (46.7)	44 (47.8)	5 (5.4)	92 (57.5)		
학급수	36학급 이하	23 (31.1)	50 (67.6)	1 (1.4)	74 (46.3)	18.43 (2)	0.000***
	37학급 이상	53 (61.6)	29 (33.7)	4 (4.7)	86 (53.8)		
학교 소재지	동 지역	57 (61.3)	33 (35.5)	3 (3.2)	93 (58.1)	17.58 (2)	0.000***
	읍 ·면 지역	19 (28.4)	46 (68.7)	2 (3.0)	67 (41.9)		
계		76 (47.5)	79 (49.4)	5 (3.1)	160 (100.0)		

* $p<.05$, ** $p<.01$, *** $p<.001$

성별, 교직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급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8.43$, $p<.001$). 36학급 이하 교사가 37학급 이상 교사보다 교내 교사와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한다고 인식하였고, 37학급 이상 교사는 36학급 이하 교사보다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교육활동만 한다고 인식하였다. 학교 소재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7.58, p<.001). 학교 소재지별로는 동지역 교사가 읍 ·면지역 교사보다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교육활동만 한다고 인식하였고, 읍 ·면지역 교사는 동지역 교사보다 교내 교사와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내 교사와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동지역 교사가 읍 ·면지역 교사보다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교육활동만 한다고 인식하였다.

② 인근 학교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인근 학교와 특기 ·적성 교육활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9>과 같이 전체 평균이 3.25로, 교사들은 인근 학교와 특기 ·적성 교육활동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성별, 교육경력 ,학급수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 소재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20, p<.05). 학교 소재지별로는 읍 ·면지역 교사가 동지역 교사보다 인근 학교와 특기 ·적성 교육활동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Ⅳ-9> 인근 학교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구 분		n	Mean	SD	t	p
성별	남	48	3.19	1.00	-0.53	0.598
	여	112	3.28	0.97		
교직경력	20년 이하	68	3.29	0.99	0.49	0.625
	21년 이상	92	3.22	0.97		
학급수	36학급 이하	74	3.34	1.00	1.05	0.293
	37학급 이상	86	3.17	0.96		
학교소재지	동 지역	93	3.11	0.97	-2.20	0.029*
	읍·면 지역	67	3.45	0.96		
전 체		160	3.25	0.98		

* p<.05, ** p<.01, *** p<.001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인근 학교와 특기·적성 교육활동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읍·면지역 교사가 동지역 교사보다 인근 학교와 특기·적성 교육활동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2) 특기·적성교육의 강사에 대한 인식

① 특기·적성교육 지도 교사의 지도 능력

특기·적성교육 지도 교사의 지도 능력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10>와 같이 전체 평균이 3.64로, 교사들은 특기·적성교육 지도 교사의 지도 능력이 훌륭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Ⅳ-10> 특기 ·적성교육 지도 교사의 지도 능력

구 분		n	Mean	SD	t	p
성별	남	48	3.56	0.65	-0.97	0.334
	여	112	3.68	0.71		
교직경력	20년 이하	68	3.60	0.63	-0.64	0.525
	21년 이상	92	3.67	0.74		
학급수	36학급 이하	74	3.77	0.73	2.16	0.032*
	37학급 이상	86	3.53	0.65		
학교소재지	동 지역	93	3.57	0.65	-1.59	0.113
	읍 ·면 지역	67	3.75	0.75		
전 체		160	3.64	0.69		

* p<.05, ** p<.01, *** p<.001

성별, 교직경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급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16, p<.05). 36학급 이하 교사가 37학급 이상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 지도 교사의 지도 능력이 훌륭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 소재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특기 ·적성교육 지도 교사의 지도 능력이 훌륭하다고 인식하였으며, 36학급 이하가 37학급 이상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 지도 교사의 지도 능력이 훌륭하다고 인식하였다.

② 특기 ·적성교육 지도 교사의 애로사항

특기 ·적성교육 지도교사의 애로사항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11>과 같이 학교의 활용 시설 및 자료 부족이 특기 ·적성교육 지도교사의 애로사항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른 업무로 인한 교육 준비시간 부족 33.1%, 학생들의 높은 결석률 11.9%, 본인의 지도 능력의 한계 9.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교직경력, 학급수,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Ⅳ-11> 특기 ·적성교육 지도 교사의 애로사항

구 분		다른 업무로 인한 교육 준비시간 부족	본인의 지도 능력의 한계	학교의 활용 시설 및 자료 부족	학생들의 높은 결석률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18 (37.5)	6 (12.5)	15 (31.3)	6 (12.5)	3 (6.3)	48 (30.0)	3.35 (4)	0.502
	여	35 (31.3)	9 (8.0)	51 (45.5)	13 (11.6)	4 (3.6)	112 (70.0)		
교직 경력	20년 이하	24 (35.3)	4 (5.9)	32 (47.1)	6 (8.8)	2 (2.9)	68 (42.5)	4.16 (4)	0.385
	21년 이상	29 (31.5)	11 (12.0)	34 (37.0)	13 (14.1)	5 (5.4)	92 (57.5)		
학급수	36학급 이하	31 (41.9)	5 (6.8)	24 (32.4)	11 (14.9)	3 (4.1)	74 (46.3)	7.87 (4)	0.097
	37학급 이상	22 (25.6)	10 (11.6)	42 (48.8)	8 (9.3)	4 (4.7)	86 (53.8)		
학교 소재지	동 지역	24 (25.8)	8 (8.6)	45 (48.4)	12 (12.9)	4 (4.3)	93 (58.1)	6.68 (4)	0.154
	읍 ·면 지역	29 (43.3)	7 (10.4)	21 (31.3)	7 (10.4)	3 (4.5)	67 (41.9)		
계		53 (33.1)	15 (9.4)	66 (41.3)	19 (11.9)	7 (4.4)	160 (100.0)		

* $p<.05$, ** $p<.01$, *** $p<.001$

이상과 같이 학교의 활용 시설 및 자료 부족이 특기 ·적성교육 지도교사의 애로사항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③ 특기 ·적성교육 강사 선정 절차

특기 ·적성교육 강사 선정 절차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12>과 같이 특기 ·적성교육 강사 선정은 참여를 희망하는 교내 교사와 외부 강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외부강사 29.4%, 외부 전문지도 단체에 전적으로 위임 16.9%,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 3.8%, 교내교사 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특기 ·적성교육 강사 선정 절차

구 분		교내 교사	외부 강사	참여를 희망하는 교내 교사와 외부 강사	외부 전문지도 단체에 전적으로 위임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	계	X^2 (df)	p
성별	남	1 (2.1)	13 (27.1)	25 (52.1)	6 (12.5)	3 (6.3)	48 (30.0)	2.68 (4)	0.613
	여	4 (3.6)	34 (30.4)	50 (44.6)	21 (18.8)	3 (2.7)	112 (70.0)		
교직 경력	20년 이하	1 (1.5)	19 (27.9)	32 (47.1)	12 (17.6)	4 (5.9)	68 (42.5)	2.60 (4)	0.628
	21년 이상	4 (4.3)	28 (30.4)	43 (46.7)	15 (16.3)	2 (2.2)	92 (57.5)		
학급수	36학급 이하	2 (2.7)	19 (25.7)	34 (45.9)	17 (23.0)	32 (2.7)	74 (46.3)	4.18 (4)	0.382
	37학급 이상	3 (3.5)	28 (32.6)	41 (47.7)	10 (11.6)	4 (4.7)	86 (53.8)		
학교 소재지	동 지역	3 (3.2)	30 (32.3)	43 (46.2)	13 (14.0)	4 (4.3)	93 (58.1)	1.94 (4)	0.747
	읍 ·면 지역	2 (3.0)	17 (25.4)	32 (47.8)	14 (20.9)	2 (3.0)	67 (41.9)		
계		5 (3.1)	47 (29.4)	75 (46.9)	27 (16.9)	6 (3.8)	160 (100.0)		

* $p<.05$, ** $p<.01$, *** $p<.001$

성별, 교직경력, 학급수, 학교 소재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특기 ·적성교육 강사 선정은 참여를 희망하는 교내 교사와 외부 강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특기 ·적성교육의 프로그램 운영

①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 실태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 실태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13>와 같이 특기 ·적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68.1%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31.9%보다 많았다.

<표 Ⅳ-13>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 실태

구 분		예	아니오	계	χ^2 (df)	p
성별	남	33 (68.8)	15 (31.3)	48 (30.0)	0.01 (1)	0.912
	여	76 (67.9)	36 (32.1)	112 (70.0)		
교직경력	20년 이하	45 (66.2)	22 (33.8)	68 (42.5)	0.21 (1)	0.649
	21년 이상	64 (69.6)	28 (30.4)	92 (57.5)		
학급수	36학급 이하	51 (68.9)	23 (31.1)	74 (46.3)	0.04 (1)	0.842
	37학급 이상	58 (67.4)	28 (32.6)	86 (53.8)		
학교 소재지	동 지역	67 (72.0)	26 (28.0)	93 (58.1)	1.57 (1)	0.210
	읍 ·면 지역	42 (62.7)	25 (37.3)	67 (41.9)		
계		109 (68.1)	51 (31.9)	160 (100.0)		

* $p<.05$, ** $p<.01$, *** $p<.001$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수별,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특기 ·적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보다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②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14>과 같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관심이 적어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특기 ·적성교육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생이 희망하는 다양한 부서가 개설되지 않아서 39.2%, 담당 부서 지도교사가 소극적이고 지도 능력이 부족해서 7.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관심이 적어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특기 ·적성교육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4>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학생이 희망하는 다양한 부서가 개설되지 않아서	20	39.2
학생이나 학부모의 관심이 적어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26	51.0
담당 부서 지도교사가 소극적이고 지도 능력이 부족해서	4	7.8
기타	1	2.0
계	51	100.0

* p<.05, ** p<.01, *** p<.001

③ 학생 참여 부진 이유

학생들이 특기 ·적성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15>와 같이 학원 등에서 과외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기 ·적성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7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동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 15.0%, 참여하고 싶어도 하교할 때 차량이 없기 때문에 8.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5> 학생 참여 부진 이유

구 분		학원 등에서 과외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	참여하고 싶어도 하교할 때 차량이 없기 때문에	기타	계	X^2 (df)	p
성별	남	33 (68.8)	11 (22.9)	2 (4.2)	2 (4.2)	48 (30.0)	6.47 (3)	0.091
	여	87 (77.7)	13 (11.6)	11 (9.8)	1 (0.9)	112 (70.0)		
교직경력	20년 이하	50 (73.5)	10 (14.7)	6 (8.8)	2 (2.9)	68 (42.5)	0.83 (3)	0.843
	21년 이상	70 (76.1)	14 (15.2)	7 (7.6)	1 (1.1)	92 (57.5)		
학급수	36학급 이하	56 (75.7)	10 (13.5)	6 (8.1)	2 (2.7)	74 (46.3)	0.71 (3)	0.870
	37학급 이상	64 (74.4)	14 (16.3)	7 (8.1)	1 (1.2)	86 (53.8)		
학교 소재지	동 지역	68 (73.1)	17 (18.3)	7 (7.5)	1 (1.1)	93 (58.1)	2.55 (3)	0.466
	읍·면 지역	52 (77.6)	7 (10.4)	6 (9.0)	2 (3.0)	67 (41.9)		
계		120 (75.0)	24 (15.0)	13 (8.1)	3 (1.9)	160 (100.0)		

* $p<.05$, ** $p<.01$, *** $p<.001$

성별, 교직경력별, 학급수별, 학교 소재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학원 등에서 과외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기·적성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④ 학생 참여 활성화 방안

학생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16>와 같이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많은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70.0%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사설 학원처럼 하교시 차량 운행 13.8%, 기타 8.1%, 수익자 부담 금액 인하 4.4%, 사설 학원처럼 하교시 차량 운행 3.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16> 학생 참여 활성화 방안

구 분		수익자 부담 금액 인하	아동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사설 학원처럼 하교시 차량 운행	발표의 기회 제공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2 (4.2)	34 (70.8)	8 (16.7)	-	4 (8.3)	48 (30.0)	3.01 (4)	0.556
	여	5 (4.5)	78 (69.6)	14 (12.5)	6 (5.4)	9 (8.0)	112 (70.0)		
교직 경력	20년 이하	1 (1.5)	47 (69.1)	8 (11.8)	4 (5.9)	8 (11.8)	68 (42.5)	5.99 (4)	0.200
	21년 이상	6 (6.5)	65 (70.7)	14 (15.2)	2 (2.2)	5 (5.4)	92 (57.5)		
학급수	36학급 이하	2 (2.7)	49 (66.2)	13 (17.6)	3 (4.1)	7 (9.5)	74 (46.3)	2.96 (4)	0.565
	37학급 이상	5 (5.8)	63 (73.3)	9 (10.5)	3 (3.5)	6 (7.0)	86 (53.8)		
학교 소재지	동 지역	6 (6.5)	68 (73.1)	11 (11.8)	3 (3.2)	5 (5.4)	93 (58.1)	5.32 (4)	0.256
	읍 ·면 지역	1 (1.5)	44 (65.7)	11 (16.4)	3 (4.5)	8 (11.9)	67 (41.9)		
계		7 (4.4)	112 (70.0)	22 (13.8)	6 (3.8)	13 (8.1)	160 (100.0)		

* $p<.05$, ** $p<.01$, *** $p<.001$

이상과 같이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많은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⑤ 프로그램 지도 내용 인식

사설 교육기관과 비교시 학교에서 실시되는 특기 ·적성교육의 프로그램 지도

내용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17>과 같이 전체 평균이 3.16으로, 교사들은 사설 교육기관과 비교시 학교에서 실시되는 특기 ·적성교육의 프로그램 지도 내용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표 Ⅳ-17> 프로그램 지도 내용 인식

구 분		n	Mean	SD	t	p
성별	남	48	3.25	0.70	1.03	0.307
	여	112	3.12	0.78		
교직경력	20년 이하	68	3.16	0.75	0.08	0.937
	21년 이상	92	3.15	0.77		
학급수	36학급 이하	74	3.14	0.73	-0.33	0.745
	37학급 이상	86	3.17	0.79		
학교소재지	동 지역	93	3.20	0.73	0.95	0.346
	읍 ·면 지역	67	3.09	0.79		
전 체		160	3.16	0.76		

* p<.05, ** p<.01, *** p<.001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사설 교육기관과 비교시 학교에서 실시되는 특기 ·적성교육의 프로그램 지도 내용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⑥ 학습지도 자료

특기 ·적성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지도 자료의 충분성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18>과 같이 전체 평균이 3.03으로, 교사들은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지도 자료가 그다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41, p<.05).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지도 자료가 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85, p<.01). 경력별로는 21년 이상 교사가 20년 이하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지도 자료가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Ⅳ-18> 학습지도 자료

구 분		n	Mean	SD	t	p
성별	남	48	3.25	0.67	2.41	0.017*
	여	112	2.93	0.91		
교직경력	20년 이하	68	2.82	0.85	-2.85	0.005**
	21년 이상	92	3.17	0.70		
학급수	36학급 이하	74	3.04	0.80	0.23	0.817
	37학급 이상	86	3.01	0.77		
학교소재지	동 지역	93	3.09	0.70	1.16	0.248
	읍 ·면 지역	67	2.94	0.89		
전 체		160	3.03	0.78		

* p<.05, ** p<.01, *** p<.001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특기 ·적성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지도 자료가 그다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남자교사와 교직경력이 21년 이상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지도 자료가 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

⑦ 특기 ·적성교육의 적정 지도 횟수

특기 ·적성교육의 적정 지도 횟수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19>과 같이 특기 ·적성교육의 지도 횟수는 현재와 같이 일주일에 2번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 3번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교사도 43.1%로 비교적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 4번 6.3%, 주 1번 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9> 특기 ·적성교육의 적정 지도 횟수

구 분		주 1번	현재와 같이 주 2번	주 3번	주 4번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2 (4.2)	17 (35.4)	20 (41.7)	5 (10.4)	4 (8.3)	48 (30.0)	12.91 (4)	0.012*
	여	3 (2.7)	55 (49.1)	49 (43.8)	5 (4.5)	-	112 (70.0)		
교직 경력	20년 이하	-	38 (55.9)	26 (38.2)	2 (2.9)	2 (2.9)	68 (42.5)	9.63 (4)	0.047*
	21년 이상	5 (5.4)	34 (37.0)	43 (46.7)	8 (8.7)	2 (2.2)	92 (57.5)		
학급수	36학급 이하	2 (2.7)	26 (35.1)	39 (52.7)	4 (5.4)	3 (4.1)	74 (46.3)	7.47 (4)	0.113
	37학급 이상	3 (3.5)	46 (53.5)	30 (34.9)	6 (7.0)	1 (1.2)	86 (53.8)		
학교 소재지	동 지역	2 (2.2)	49 (52.7)	35 (37.6)	6 (6.5)	1 (1.1)	93 (58.1)	6.96 (4)	0.138
	읍 ·면 지역	3 (4.5)	23 (34.3)	34 (50.7)	4 (6.0)	3 (4.5)	67 (41.9)		
계		5 (3.1)	72 (45.0)	69 (43.1)	10 (6.3)	4 (2.5)	160 (100.0)		

* $p<.05$, ** $p<.01$, *** $p<.001$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91$, $p<.05$).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의 지도 횟수는 일주일에 4번이 적정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현재와 같이 일주일에 2번이 적정하다고 인식하였다.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63$, $p<.05$). 교직경력별로는 20년 이하 교사가 21년 이상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의 지도 횟수는 현재와

같이 일주일에 2번이 적정하다고 인식하였고, 21년 이상 교사는 20년 이하 교사보다 주 4번이 적정하다고 인식하였다.

학급수별, 학교 소재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특기 ·적성교육의 지도 횟수는 일주일에 2번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자교사와 교직경력이 20년 이하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의 지도 횟수는 현재와 같이 일주일에 2번이 적정하다고 인식하였다.

⑧ 특기 ·적성교육 지도 장소

특기 ·적성교육 지도 장소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Ⅳ-20>와 같이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특별교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의 빈 교실 37.5%, 지역사회 유휴시설 5.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이나 교직경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급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3.62, p<.01). 학급수별로는 36학급 이하 교사가 37학급 이상 교사보다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특별교실에서 실시한다고 인식하였고, 37학급 이상 교사는 36학급 이하 교사보다 학교의 빈 교실에서 실시한다고 인식하였다. 학교 소재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χ^2=11.56, p<.01). 학교 소재지별로는 동 지역 교사가 읍 ·면 지역 교사보다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학교의 빈 교실에서 실시한다고 인식하였고, 읍 ·면 지역 교사는 동 지역 교사보다 특별교실에서 실시한다고 인식하였다.

<표 Ⅳ-20> 특기·적성교육 지도 장소

구 분		특별교실	학교의 빈 교실	지역사회 유휴 시설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30 (62.5)	14 (29.2)	3 (6.3)	1 (2.1)	48 (30.0)	2.34 (3)	0.505
	여	60 (53.6)	46 (41.1)	5 (4.5)	1 (0.9)	112 (70.0)		
교직경력	20년 이하	41 (60.3)	22 (32.4)	3 (4.4)	2 (2.9)	68 (42.5)	3.97 (3)	0.265
	21년 이상	49 (53.3)	38 (41.3)	5 (5.4)	-	92 (57.5)		
학급수	36학급 이하	53 (71.6)	18 (24.3)	2 (2.7)	1 (1.4)	74 (46.3)	13.62 (3)	0.003**
	37학급 이상	37 (43.0)	42 (48.8)	6 (7.0)	1 (1.2)	86 (53.8)		
학교 소재지	동 지역	42 (45.2)	44 (47.3)	6 (6.5)	1 (1.1)	93 (58.1)	11.55 (3)	0.009**
	읍·면 지역	48 (71.6)	16 (23.9)	2 (3.0)	1 (1.5)	67 (41.9)		
계		90 (56.3)	60 (37.5)	8 (5.0)	2 (1.3)	160 (100.0)		

* $p<.05$, ** $p<.01$, *** $p<.001$

이상과 같이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특별교실에서 실시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37학급 이상 교사와 동 지역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학교의 빈 교실에서 실시한다고 인식하였다.

(4) 특기·적성교육 수강료 부담 정도

① 특기·적성교육의 부서별 한달 수강료

특기·적성교육의 부서별 한달 수강료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21>과 같이 전체 평균이 3.56으로, 교사들은 특기·적성교육의 부서별 한달 수강료가 적당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Ⅳ-21> 특기 ·적성교육의 부설별 한달 수강료

구 분		n	Mean	SD	t	p
성별	남	48	3.56	0.77	0.00	1.000
	여	112	3.56	0.69		
교직경력	20년 이하	68	3.68	0.70	1.74	0.083
	21년 이상	92	3.48	0.72		
학급수	36학급 이하	74	3.59	0.83	0.51	0.608
	37학급 이상	86	3.53	0.61		
학교소재지	동 지역	93	3.55	0.65	-0.29	0.770
	읍 ·면 지역	67	3.58	0.80		
전 체		160	3.56	0.72		

* p<.05, ** p<.01, *** p<.001

성별, 교직경력별, 학급 수,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특기 ·적성교육의 부서별 한달 수강료가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② 특기 ·적성교육 수강료 부담

특기 ·적성교육 수강료 부담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22>와 같이 특기 ·적성교육 수강료는 국가와 학부모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가와 학부모가 공동 부담하되 도 ·노간에 부담 비율을 차별화해야 한다 27.5%,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전액 학부모 부담 26.9%, 극빈자, 소년 ·소녀 가장, 일부 실직자 자녀 등에만 전액 지원 10.0%, 전액 국가 부담 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2> 특기·적성교육 수강료 부담

구 분		전액 국가 부담	국가와 학부모 공동 부담	국가와 학부모가 공동 부담하되 도·농간에 부담 비율 차별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전액 학부모 부담	극빈자, 소년·소녀 가장, 일부 실직자 자녀 등에만 전액 지원	계	χ^2 (df)	p
성별	남	3 (6.3)	10 (20.8)	11 (22.9)	18 (37.5)	6 (12.5)	48 (30.0)	6.77 (4)	0.149
	여	4 (3.6)	40 (35.7)	33 (29.5)	25 (22.3)	10 (8.9)	112 (70.0)		
교직 경력	20년 이하	2 (2.9)	23 (33.8)	21 (30.9)	11 (16.2)	11 (16.2)	68 (42.5)	10.85 (4)	0.028 *
	21년 이상	5 (5.4)	27 (29.3)	23 (25.0)	32 (34.8)	5 (5.4)	92 (57.5)		
학급수	36학급 이하	4 (5.4)	23 (31.1)	22 (29.7)	19 (25.7)	6 (8.1)	74 (46.3)	1.15 (4)	0.886
	37학급 이상	3 (3.5)	27 (31.4)	22 (25.6)	24 (27.9)	10 (11.6)	86 (53.8)		
학교 소재지	동 지역	3 (3.2)	33 (35.5)	24 (25.8)	25 (26.9)	8 (8.6)	93 (58.1)	2.61 (4)	0.625
	읍·면 지역	4 (6.0)	17 (25.4)	20 (29.9)	18 (26.9)	8 (11.9)	67 (41.9)		
계		7 (4.4)	50 (31.3)	44 (27.5)	43 (26.9)	16 (10.0)	160 (100.0)		

* $p<.05$, ** $p<.01$, *** $p<.001$

성별, 학급수별,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85$, $p<.05$). 교직경력별로는 20년 이하 교사가 21년 이상 교사보다 특기·적성교육 수강료는 국가와 학부모가 공동 부담하되 도·농간에 부담 비율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21년 이상 교사는 20년 이하 교사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전액 학부모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상과 같이 특기·적성교육 수강료는 국가와 학부모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교직경력이 21년 이상인 교사가 20년 이하인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전액 학부모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5) 특기 ·적성교육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

① 특기 ·적성교육 운영의 문제점

특기 ·적성교육 운영시 문제점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23>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특기 ·적성교육 운영 시 문제점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3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많은 아동의 참여가 되지 않는 점 29.4%, 지도능력을 갖춘 교사의 부족 16.3%, 학교시설 활용상의 문제 1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3> 특기 ·적성교육 운영의 문제점

구 분		많은 아동의 참여가 되지 않는 점	지도능력을 갖춘 교사의 부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어려운 점	강사료 등 수당 지불 문제	학교시설 활용상의 문제	계	χ^2 (df)	p
성별	남	20 (41.7)	8 (16.7)	13 (27.1)	1 (2.1)	6 (12.5)	48 (30.0)	6.20 (4)	0.185
	여	27 (24.1)	18 (16.1)	50 (44.6)	2 (1.8)	15 (13.4)	112 (70.0)		
교직 경력	20년 이하	18 (16.5)	7 (10.3)	34 (50.0)	1 (1.5)	8 (11.8)	68 (42.5)	6.58 (4)	0.160
	21년 이상	29 (31.5)	19 (20.7)	29 (31.5)	2 (2.2)	13 (14.1)	92 (57.5)		
학급수	36학급 이하	26 (35.1)	12 (16.2)	27 (36.5)	3 (4.1)	6 (8.1)	74 (46.3)	7.97 (4)	0.093
	37학급 이상	21 (24.4)	14 (16.3)	36 (41.9)	-	15 (17.4)	86 (53.8)		
학교 소재지	동 지역	24 (25.8)	13 (14.0)	40 (43.0)	-	16 (17.2)	93 (58.1)	9.39 (4)	0.052
	읍 ·면 지역	23 (34.3)	13 (19.4)	23 (34.3)	3 (4.5)	5 (7.5)	67 (41.9)		
계		47 (29.4)	26 (16.3)	63 (39.4)	3 (1.9)	21 (13.1)	160 (100.0)		

* $p<.05$, ** $p<.01$, *** $p<.001$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많은 아동의 참여가 되지 않는 점이 특기 ·적성교육 운영 시 문제점이라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특기 ·적성교육 운영 시 문제점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성별, 교직경력, 학급 수,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특기 ·적성교육 운영 시 문제점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② 특기 ·적성교육 활동의 개선점

특기 ·적성교육 활동의 개선점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24>과 같이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이 특기 ·적성교육 활동의 개선점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4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전문 교육 실시 36.3%, 다양한 강좌의 개설 7.5%, 지도교사의 실력 및 자질 향상 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4> 특기 ·적성교육 활동의 개선점

구 분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전문 교육 실시	지도교사의 실력 및 자질 향상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수강료의 적정선 유지	다양한 강좌의 개설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21 (43.8)	3 (6.3)	18 (37.5)	-	4 (8.3)	2 (4.2)	48 (30.0)	3.22 (5)	0.667
	여	37 (33.0)	7 (6.3)	55 (49.1)	2 (1.8)	8 (7.1)	3 (2.7)	112 (70.0)		
교직 경력	20년 이하	21 (30.9)	4 (5.9)	34 (50.0)	-	6 (8.8)	3 (4.4)	68 (42.5)	3.84 (5)	0.572
	21년 이상	37 (40.2)	6 (6.5)	39 (42.4)	2 (2.2)	6 (6.5)	2 (2.2)	92 (57.5)		
학급수	36학급 이하	27 (36.5)	4 (5.4)	34 (45.9)	1 (1.4)	6 (8.1)	2 (2.7)	74 (46.3)	0.32 (5)	0.997
	37학급 이상	31 (36.0)	6 (7.0)	39 (45.3)	1 (1.2)	6 (7.0)	3 (3.5)	86 (53.8)		
학교 소재지	동 지역	34 (36.6)	5 (5.4)	42 (45.2)	1 (1.1)	8 (8.6)	3 (3.2)	93 (58.1)	0.71 (5)	0.982
	읍 ·면 지역	24 (35.8)	5 (7.5)	31 (46.3)	1 (1.5)	4 (6.0)	2 (3.0)	67 (41.9)		
계		58 (36.3)	10 (6.3)	73 (45.6)	2 (1.3)	12 (7.5)	5 (3.1)	160 (100.0)		

* $p<.05$, ** $p<.01$, *** $p<.001$

성별, 교직경력, 학급수,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이 특기 ·적성교육 활동의 개선점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특기 ·적성교육의 평가 및 환류

(1) 특기 ·적성교육의 평가 방법

특기 ·적성교육의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Ⅳ-25>와 같이 특기 ·적성교육의 평가는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가 4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 및 학부모에 대한 설문 조사 10.6%, 학교 관리자 및 교사의 수업 참관 7.5%, 종합발표회 개최 6.3% 순으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학교는 33.8%로 비교적 많았다.

성별, 교직경력, 학급 수,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25> 특기 ·적성교육의 평가 방법

구 분		학교 관리자 및 교사의 수업 참관	종합발표회 개최	부서별로 자율적인 평가	아동 및 학부모에 대한 설문 조사	별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계	χ^2 (df)	p
성별	남	5 (10.4)	1 (2.1)	21 (43.8)	6 (12.5)	15 (31.3)	48 (30.0)	3.09 (4)	0.542
	여	7 (6.3)	9 (8.0)	46 (41.1)	11 (9.8)	39 (34.8)	112 (70.0)		
교직 경력	20년 이하	2 (2.9)	5 (7.4)	24 (35.3)	7 (10.3)	30 (44.1)	68 (42.5)	8.51 (4)	0.075
	21년 이상	10 (10.9)	5 (5.4)	43 (46.7)	10 (10.9)	24 (26.1)	92 (57.5)		
학급수	36학급 이하	5 (6.8)	4 (5.4)	33 (44.6)	6 (8.1)	26 (35.1)	74 (46.3)	1.40 (4)	0.844
	37학급 이상	7 (8.1)	6 (7.0)	34 (39.5)	11 (12.8)	28 (32.6)	86 (53.8)		
학교 소재지	동 지역	8 (8.6)	10 (10.8)	38 (40.9)	10 (10.8)	27 (29.0)	93 (58.1)	9.09 (4)	0.059
	읍 ·면 지역	4 (6.0)	-	29 (43.3)	7 (10.4)	27 (40.3)	67 (41.9)		
계		12 (7.5)	10 (6.3)	67 (41.9)	17 (10.6)	54 (33.8)	160 (100.0)		

* $p<.05$, ** $p<.01$, *** $p<.001$

이상과 같이 특기 ·적성교육의 평가는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특기 ·적성교육의 환류

특기 ·적성교육의 환류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26>과 같이 전체 평균이 3.12로, 교사들은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가 차기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계획 수립 시 그다지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표 Ⅳ-26> 특기 ·적성교육의 환류

구 분		n	Mean	SD	t	p
성별	남	48	3.02	0.81	-0.96	0.341
	여	112	3.14	0.71		
교직경력	20년 이하	68	3.13	0.71	0.38	0.703
	21년 이상	92	3.09	0.77		
학급수	36학급 이하	74	3.04	0.82	-1.04	0.299
	37학급 이상	86	3.16	0.67		
학교소재지	동 지역	93	3.17	0.65	1.33	0.186
	읍 ·면 지역	67	3.01	0.84		
전 체		160	3.11	0.74		

* p<.05, ** p<.01, *** p<.001

성별, 교직경력, 학급수,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가 차기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계획 수립 시 그다지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종합적 논의

지금까지 분석한 특기 ·적성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계획 및 수립, 운영, 평가 및 환류의 네 측면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특기 ·적성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을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특기 ·적성 교육이 필요하고, 특기 ·적성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해 그다지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기 ·적성 교육에 관심이 적고, 학교 밖 사설교육기관(학원)의 수강이나 과외를 선호하기 때문이리라 유추할 수 있다. 또 읍 ·면 지역 교사가 동 지역 교사보다 특기 ·적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아 교육여건이 열악한 읍 ·면 지역의 특기 ·적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특기 ·적성 교육의 계획 및 수립에 대한 인식에서 특기 ·적성 교육 계획 수립 시 교사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정도에 대해 그다지 수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교육이 학교의 일방적인 주도보다는 학교 교육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이 학교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 지역 보다 읍 ·면 지역에서 의견 수렴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읍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교생 수가 적으므로, 한 부서에 20명 정도의 아동이 희망을 해야 개설되기 때문에 1 2개의 프로그램이l라도 개설하려고 의견수렴을 잘 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인근 학교끼리 또는 교육청 단위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기 ·적성 교육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특

기 ·적성 교육의 운영 형태, 강사 선정,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운영 형태 면에서 교내 교사와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을 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읍 ·면 지역 보다 동 지역에서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 교육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내 교사가 특기 ·적성 교육을 담당할 경우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인근 학교와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읍 ·면 지역 교사가 동 지역 교사보다 필요성을 더 인식한 것은 읍 ·면 지역의 소규모 단일학교에서는 강사료를 지급할 만큼의 희망 아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설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제반 여건이 열악한 읍 ·면 지역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특기 ·적성 교육 학생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아동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는데, 많은 부서를 개설하여도 참가 희망자가 적은 부서는 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폐강 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프로그램 지도 내용 인식에 있어 사설교육기관과 비교 시 학교에서 실시되는 특기 ·적성 교육의 프로그램 지도 내용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전문적인 교사 ·강사를 점차 확보해 나아가야 하며, 교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학습 지도 자료의 인식에 있어 그다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여서 학교의 교구 및 자료 측면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기 ·적성 교육 수강료에 대해서는 국가와 학부모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는데, 현재는 12학급 미만의 일부 소규모 학교와 저소득층, 실직자, 보훈 대상자 자녀 및 소년 ·소녀 가장, 극빈자 자녀를 제외하고는 수익자 부담이므로 많은 아동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국고 지원금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고, 공동 부담으로 특기 ·적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보면 문제점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고, 개선점은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려면 부서 당 인원이 최소한 20명은 되어야 하므로, 교사들의 특기 ·적성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아동과 학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청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단위 학교 시설이 부족할 경우, 지역 사회와의 협조 체제를 구축, 즉 타 학교와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거나, 지방 자치단체, 민간 청소년 단체 및 인근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한 시설 이용, 사회 복지관, 스포츠 센터 등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설만이 아니라 강사진 확보를 위해서도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 및 환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가는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가 많았으며, 환류는 특기 ·적성 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가 차기 특기 ·적성 교육의 계획 수립 시 그다지 잘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관리자와 교사는 평가에 관심을 가져야겠고, 평가 결과가 차기 계획 수립 시 잘 반영되어야 특기 ·적성 교육이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참고문헌과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여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의 개선 방안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론적 배경에서 특기 ·적성 교육 개념의 이해, 필요성 및 목적,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의 운영, 선행연구의 논문을 영역별로 분석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초등학교 교사의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문항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토대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경주시 동, 읍, 면 소재 공립 초등학교 교사 총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조사한 자료는 교사들의 성별, 교직경력별, 학교규모별, 학교소재지별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χ^2 검증과 t검증을 통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특기 ·적성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첫째, 특기 ·적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들은 특기 ·적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직경력이 20년 이하인 교사가 21년 이상 교

사보다 특기 ·적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특기 ·적성 교육의 목적에 대해‘ 아동의 소질 계발 및 특기신장’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셋째, 특기 ·적성교육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해 교사들은 그다지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았으며. 성별과 교직 경력,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특기 ·적성교육의 계획 및 수립

첫째, 특기 ·적성교육의 의견수렴에 대해 교사들은 특기 ·적성교육 계획 수립 시 교사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이 그다지 수렴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직경력이 21년 이상인 교사와 학급수가 36학급 이하인 교사, 그리고 읍 ·면 지역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 계획 수립 시 교사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수렴 정도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다.

둘째, 특기 ·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홍보에 대해 특기 ·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특기 ·적성교육 활동의 부서 결정 방법에 대해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의 부서는 아동 및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

첫째,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 형태에 대해 교내 교사와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동 지역 교사가 읍 ·면 지역 교사보다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교육 활동만 한다고 인식하였다. 인근 학교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들은 인근 학교와 특기 ·적성 교육활동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읍 ·면 지역 교사가 동 지역 교사보다 인근 학교와 특기 ·적성 교육활동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특기 ·적성교육 지도 교사의 지도 능력에 대해 교사들은 특기 ·적성교육 지도 교사의 지도 능력이 훌륭하다고 인식하였으며, 36학급 이하가 37학급 이상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 지도 교사의 지도 능력이 훌륭하다고 인식하였다.

특기 ·적성교육 지도교사의 애로사항에 대해 학교의 활용 시설 및 자료 부족이 특기 ·적성교육 지도 교사의 애로사항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기 ·적성교육 강사 선정 절차에 대해 강사 선정은 참여를 희망하는 교내 교사와 외부 강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 실태에 대해 특기 ·적성교육이 잘 이루

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보다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기 ·적성교육의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관심이 적어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특기 ·적성교육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생 참여 부진 이유에 대해 학원 등에서 과외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기 ·적성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생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많은 아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기 ·적성교육의 프로그램 지도 내용에 대해 사설 교육기관과 비교시 학교에서 실시되는 특기 ·적성교육의 프로그램 지도 내용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기 ·적성교육 활동에 필요한 학습지도 자료의 충분성에 대해 학습지도 자료가 그다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남자교사와 교직경력이 21년 이상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지도 자료가 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

특기 ·적성교육의 적정 지도 횟수에 대해 일주일에 2번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자교사와 교직경력이 20년

이하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의 지도 횟수는 현재와 같이 일주일에 2번이 적정하다고 인식하였다.

특기 ·적성교육 지도 장소에 대해 특별교실에서 실시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37학급 이상 교사와 동 지역 교사가 다른 지역 교사보다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학교의 빈 교실에서 실시한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특기 ·적성교육의 부서별 한달 수강료에 대해 한달 수강료가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기 ·적성교육 수강료 부담에 대해 국가와 학부모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교직경력이 21년 이상인 교사가 20년 이하인 교사보다 특기 ·적성교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전액 학부모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식된 문제점과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기 ·적성교육 운영 시 문제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특기 ·적성교육 활동의 개선점에 대해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이 특기 ·적성교육 활동의 개선점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경력, 학급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특기 ·적성교육의 평가 및 환류

특기 ·적성교육의 평가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기 ·적성교육의 평가는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교직

경력,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가 차기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계획 수립 시 그다지 잘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특기 ·적성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면에서

첫째, 교사들은 특기 ·적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기 ·적성 교육의 목적이 지향하는 바대로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해서 특기 ·적성 교육은 반드시 교육과정 편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계획 및 수립 면에서

첫째, 특기 ·적성 교육 계획 수립 시 교사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이 그다지 수렴되지 않고 있어, 학부모의 학교 교육의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다양한 의견이 학교 교육에 반영되어 아동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된 특기 ·적성 교육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아동의 경우, 담임교사의 특기 ·적성 교육에 대한 성의 있는 안내는 필수적이며, 정규 교육 시간에 아동이 그의 성취 정도를 발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교실 수업 자체에서 많이 개방하여 줌으로써, 아동의 참여 동기와 성취 동기를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서 결정에 있어 아동 및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

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3) 특기 ·적성 교육의 운영면에서

첫째, 운영 형태는 교내 교사와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교육을 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고, 37학급 이상인 학교에서는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 교육만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교육 수요자 측면에서는 전문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교사 아닌 외부 전문 강사의 지도를 원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내 교사가 특기 ·적성 교육을 담당할 경우 이중 직무의 어려움과 교직의 사명감을 구실로 방과후의 자기 계발의 기회를 차단하는 개인적인 손실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 비율을 최소화하되 개별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강사 운영을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기 ·적성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아동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수강료 부담에 대해 국가와 학부모가 공동 부담해야 하며도 ·농간에 부담 비율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특기 ·적성교육 프로그램은 개별 학교 및 지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불리한 읍 ·면 지역의 아동들에게 특기 ·적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자는 입장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측면에서의 제도적 배려가 요구된다.

셋째, 특기 ·적성 교육의 개선점에 대해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의 구비가 전제되어야 하며 사설교육기관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4) 평가 및 환류면에서

첫째, 특기 ·적성 교육의 평가가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외래 강사의 교수 ·학습 지도안의 검토 및 지도는 관리 교사와의 협조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외에 정기적인 수업 공개와 관찰, 강의 평가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환류에 의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평가 결과가 차기 특기 ·적성 교육의 계획 수립시 잘 반영 되도록 하여 특기 ·적성 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 특별활동 : 특별활동, 교육부, 2001.

류광찬 ·홍광식, 특별활동 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배영사, 1981.

윤종건, 한국 교육의 이해, 서울: 교학연구사, 1992.

이경환 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과학사, 1999.

【논 문】

구정회,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김귀희,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활동의 문제점과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김명례,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와 관리자의 관심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선미, 「학령기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모형 정립」,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정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유재을, 「유치원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이현준,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최기웅,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기타자료】

경상북도경주교육청, 2003학년도 특기 ·적성교육 추진계획, 2003.
경상북도교육청, 특기 ·적성 교육의 길라잡이, 2001.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1995.
동아일보, 1997년 5. 19.
서일옥,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실태조사, 초등특별연구교사 연구보고서, 경상남도교육청, 1997.
유광기, 상설특별활동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 1998.
조선일보, 1997. 5. 12.
한국여성개발원, 방과후 아동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1994.
허경철 ·홍생표,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

ABSTRACT

A study of the ways to advance after-schoo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Kim, Myung-Hwa

Majoring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ung, Hyun Ju)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reveals specialty·aptitude education is necessary for students, and teachers were conscious of the need for specialty · aptitude education. Also, a majority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the purpose of the specialty·aptitude education is to improve students' quality and extend special ability. And, specialty·aptitude Education should be involved in Education curriculum to advance specialty·aptitude education as it focuses on.

Second, there should be devices - economical support, arrangement of instructors - to activate specialty·aptitude education for students living in Eup, Myeon area. And Public Relations for programs. For kids, explanation for the program is essential. I consider operating joint activities of specialty·aptitude development and regular club activities.

Third, to activate specialty·aptitude education, an opening of various programs that students want, qualitative improvement of programs, sufficient guidance materials, expansion of funds is necessary. Especially for an qualitative improvement of programs by feedback, evaluation of specialty·aptitude education should be done, and also the result of evalua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next plan of specialty·aptitude education.

Finally, ways of advancing specialty·aptitude education are, give economical support and arrangement of instructors to students living in Eup, Myeon area to activate specialty·aptitude education, publicize program administration to reflect parents' various opinions when planning specialty·aptitude education, make evaluation results be reflected in the next establishment of specialty·aptitude education plans.

To secure guidance teachers, we are required to allot school teachers and outside instructors in balanced propor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 In case that school teachers take charg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 they should be relived of duty and get extra pay for overtime work.

If after-school activities are administered to meet the original purpose and significance of education, they will help develop students' specialty and aptitude, restore people's confidence in school education and reduce private school expenses of the parents. S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based on opinions of the teachers working in actual place of education, they will be quite helpful for mor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after-school activities. I expect that these methods will help activating specialty aptitude education.

[부록]

<초등학교 특기 ·적성교육활동의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아동교육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설문지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기 ·적성교육의 현황과 그 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선생님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고 실제로 하고 계시는 바를 참고하셔서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의 응답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특기 ·적성교육 활동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각 문항에 대하여 끝까지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응답 내용은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 년 4 월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 육 행 정 전 공
김 명 화 올 림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성 별 : 1) 남 ( ) 2) 여 ( )

2. 교직경력 : 1) 10년 미만 ( )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
3) 21년 이상 ( )

3. 학급 수 : 1) 6학급 이하 ( ) 2) 7 18학급 ( )
3) 19 36 학급 ( ) 4) 37학급 이상 ( )

4. 학교소재지 : 1) 동 지역( ) 2) 읍 ·면 지역( )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곳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다소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 없다.

2. 선생님께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교가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
—② 학교 교육의 정상화 추구
—③ 사교육비 경감
—④ 아동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
—⑤ 지 ·덕 ·체의 조화로운 발달

3. 선생님께서는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 ·적성 교육이 사교육비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가 있다. —② 다소 효과가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효과가 없다 .—⑤ 전혀 효과가 없다.

4.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계획 수립 시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선생님께서는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부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아동 및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② 교사의 의견 수렴에 통해
—③ 학교의 교육 목적이나 방침에 의해
—④ 학교 시설 및 강사 확보 가능성에 따라
—⑤ 기타_____

7.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특기 ·적성 교육활동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만 한다.
—② 교내 교사에 의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만 한다.
—③ 교내 교사와 외부 강사에 의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한다.
—④ 외부 강사와 자원봉사자(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에 의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한다.
—⑤ 기타_____

8.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강사의 지도 능력은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지도교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다른 업무로 인한 교육 준비 시간 부족
—② 본인의 지도 능력의 한계
—③ 학교의 활용 시설 및 자료 부족
—④ 학생들의 높은 결석률
—⑤ 기타 _____

10.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지도 교사는 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내 교사 —② 외부 강사
—③ 참여를 희망하는 교내 교사와 외부강사
—④ 외부 전문지도 단체에 전적으로 위임
—⑤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

11.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특기 ·적성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위 11번에서‘ 아니오’ 라고 답한 선생님만 응답) 특기 ·적성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이 희망하는 다양한 부서가 개설되지 않아서
—② 학생이나 학부모의 관심이 적어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③ 담당 부서 지도 교사가 소극적이고 지도 능력이 부족해서
—④ 현직 교사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⑤ 기타_____

13.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들의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원 등에서 과외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② 아동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
—③ 참여하고 싶어도 하교할 때 차량이 없기 때문에
—④ 수강료가 부담이 되어서
—⑤ 기타_____

14.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많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익자 부담 금액 인하
—② 아동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③ 사설 학원처럼 하교시 차량 운행
—④ 발표회 기회 제공
—⑤ 기타_____

15. 사설 교육기관(학원)과 비교해 볼 때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프로그램 내용이 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6. 귀교의 경우에는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지도 자료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7. 특기 ·적성 교육활동은 주당 4 5시간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1주일에 몇 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번 —② 현재와 같이 2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18. 현재 귀교의 학생들이 내는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부서별 한달 수강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9.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수강료 부담정도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액 국가 부담
—② 국가와 학부모 공동 부담
—③ 국가와 학부모가 공동 부담하되 도 ·농간에 부담 비율 차별화
—④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전액 학부모 부담
—⑤ 극빈자, 소년 ·소녀 가장, 일부 실직자 자녀 등에만 전액 지원

20. 현재 귀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 ·적성 교육활동은 주로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집니까?

—① 특별교실(과학실, 음악실, 도서실 등)
—② 학교의 빈 교실(방과후 저학년 교실)
—③ 지역사회 유휴 시설
—④ 기타 _____

21. 지역의 특수성 , 강사의 사정, 희망 아동 수를 감안하여 인근 학교와 특기 ·적성 교육활동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2. 현재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운영시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은 아동의 참여가 되지 않는 점
—② 지도능력을 갖춘 교사(교내 교사, 외부 강사)의 부족
—③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어려운 점
—④ 강사료 등 수당 지불 문제
—⑤ 학교시설 활용상의 문제
—⑥ 기타_____

23.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의 가장 시급한 개선점을 든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전문 교육 실시
—② 지도교사의 실력 및 자질 향상
—③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④ 수강료의 적정선 유지
—⑤ 다양한 강좌의 개설
—⑥ 기타_____

24. 귀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학부모의 수업 참관
—② 학교 관리자 및 교사의 수업 참관.
—③ 종합발표회 개최
—④ 부서별로 자율적인 평가
—⑤ 아동 및 학부모에 대한 설문 조사
—⑥ 별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5.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가 차기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계획 수립 시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끝까지 성의껏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